

하길이 조절이 수확량 좌우

오이 턴널 속성 재배법

홍

보

부

식생활 양상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입맛에 맞고 싱싱한 과채류를 많이 찾게된다. 특히 오이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반면 간단한 묘상과 터널로서 재배가 가능하여 봄철 농한기를 이용한 농가 소득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다다기성 품종을 선택

오이는 어렸을 때 자란 상태가 수확기까지 지속되므로 특히 모를 기를 때 견전한 모가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어야 양질의 상품을 얻을 수 있다.

오이가 싹트는데 필요한 온도는 $25\sim30^{\circ}\text{C}$ 가 필요하며 자라는데는 $18\sim25^{\circ}\text{C}$ 가 좋으며 $10\sim12^{\circ}\text{C}$ 에서는 성

장이 멈춘다.

그늘에서는 자람성이 좋지 못해

햇빛은 강한 햇빛을 좋아해 그늘이 지면 자람성이 좋지 않고 뿌리는 얕게 뻗으므로 항상 축축한 것이 좋으나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뿌리가 썩고 병에 잘 걸린다.

토성은 퇴비가 많아 지력(地力)이 좋고 중성이거나 약알카리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

사질토, 결실쉬우나 땅굴 곁죽어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은 오이덩굴이 쉽게 늘어 버리지만 오이는 일찍 열리고 찰흙땅은 오이는 늦게 열리지만 땅굴은 오래 살아서 수확량은

많게 된다.

오이를 기를 때 수입과 큰 관계를 갖는 것은 암꽃이 빨리 많이 탈려야 하므로 암꽃이 붙는 마디가 낮으냐 높으냐는 수확을 빨리 또는 늦게하는 것을 결정하고 암꽃이 붙는 마디 수를 늘려주는 것이 수확량도 많게 된다.

낮은 온도와 짧은 해길이가 유리

암꽃이 생기는 것은 품종, 온도, 해길이에 따라 다른데 반백오이, 전주교배, 서울마디오이 등은 낮은 온도와 짧은 해길이에서 암꽃이 마디 마디에 붙는 다다기성이 되어 봄철 앞당겨기르기에 알맞으며 온도와 해길이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암꽃이 되는 지나삼척 등의 품종이 있는 데 암꽃이 마디를 건너 뛰며 드물게 피어서 빨리 수확해야 하는 봄기르기에는 적당치 않으며 여름기르기나 가을기르기에도 알맞다.

다다기성 오이는 대개 밤의 온도 15°C와 하루 7~8시간의 짧은 해길이에서 암꽃이 일찍 피고 마디마다 암꽃이 피는 성질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본잎이 4~5장이 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크다. 묘상에서 이 시기는 본줄기 10마디까지의 암꽃이 생기는 시기이므로 그 조건에 맞추도록 노력해야되고 본발에서 본잎이 10장일 때 오이의 모든 꽂이 거의

이루어 진다.

꽃이 피는 차례를 보면 처음 밀의 마디에서는 완전치 못한 숫꽃이 피고 그 후에 완전한 숫꽃이 피며 다시 암수꽃이 섞여 피다가 완전히 암꽃이 피기 시작한다. 온도가 낮거나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완전한 암꽃이 잘 생기지 않는다.

도시민과 농민 기호성 相異

종자고르기 오이는 빨리 길러서 수확을 마쳐야 되는 작물이므로 종자를 신중히 골라야 한다. 요즈음은 1대 잡종 종자가 많이 생산되어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청장마디오이, 흑진주오이, 반백다다기오이, 서울마디오이 등이 많이 심어지고 있으며 도시 사람들은 색이 흐리고 긴 오이를 좋아하고 농촌 사람들은 색이 짙고 굵은 오이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서울마디오이는 길이가 20cm정도로 짧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오이소배기에 알맞아서 대량 소비에는 알맞는 품종이다.

봄오이의 씨뿌리기와 모르기 봄오이의 모를 기르는 기간은 분에 기를 때는 30~40일 상토에서 기를 때는 55~60일 가량 기

□ 오이 턴널 속성 재배법 □

르므로 아주심기할 날자를 미리 잡아두고 분기르기는 1개월 전에 상토 기르기는 2개월 전에 온상서 씨뿌림을 한다.

봄씨뿌리기 시기와 아주심기, 수확시기를 보면 표와 같고 포트에 심으면 아주심기의 시기를 일찍 할 수 있고 수확도 1~2주 빨라진다.

◇ 씨뿌리기 시기와 수확시기와의 관계

씨뿌리는 시기	아주심기	수확시기
3월 상순	4월 하순~5월 상순	5월 중순
3월 중순	5월 상순~5월 중순	5월 하순
3월 하순	5월 중순	6월 상순
4월 중순	(본밭에 씨뿌리기)	6월 중순

씨뿌리는 양은 10a당 3흡내지 3흡 반정도를 준비하여 종자소독을 한 후에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따뜻한 곳에 두었다가 바람이 없고 기온이 높은 날 $6 \times 2\text{cm}$ 간격으로 종자를 뉘어서 3알씩 심는다.

파종후에는 따뜻한 물 뿌려주도록

종자를 심을 때는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을 덮고 젖을 얇게 깐 후에 미지근한 물을 준다. 이렇게 하면 3~5일 후에 짹이 모두 나오는데 짹이 트지 않은 곳엔 계속 더운물을 부어준다.

혀잎이 나오면 3포기 중 2포기만 남기고 본잎이 1~2장 나오면 1포기

만 남겨 기른다.

요즈음은 비닐이나 절포트를 만들어 사용하므로 한때심기가 필요치 않으나 상토에 직접 뿌렸을 때는 본잎이 보이기 시작할 때 첫번째 한때심기를 하고 본잎이 3~4매일 때 두 번째 한때심기를 한다. 짹이 터서 본잎이 나올 때까지는 20°C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햇빛이 충분히 들어가고 온상내에 즙기가 많지 않도록 관리한다.

본잎 나오면 환기와 배수에 유의

본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낮온도는 $23\sim 25^{\circ}\text{C}$ 가 되게 하고 밤온도는 $17\sim 20^{\circ}\text{C}$ 가 되도록 하며 공기 바꾸기와 물주기에 주의한다. 또한 해걸이를 8시간 정도로 조절하기 위하여 아침 8시 30분경에 덮었던 거적을 걷어주고 오후 4시 30분경에 거적을 써어서 해걸이를 조정해 준다.

이렇게 밤온도를 낮게하고 해걸이를 조절해주면 암꽃이 맺히는 마디가 낮아져서 일찍 오이가 열리고 마디를 건너뛰어서 오이가 맺지 않으며 결가지도 잘 나오게 된다. 그러나 밤온도를 너무 낮추면 암꽃이 너무 일찍 나와서 오히려 오이가 잘 자라지 못하거나 다음 열매가 잘 안 열리고 결가지의 자랄도 나빠져 수확이 크게 떨어지는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찍 맺은 오이를 따내

는 방법밖에 없다.

또 해걸이를 짚게 한다고 오랫동안 거적을 덮어두면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고 웃자라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거적은 푸른 건어주어야 한다.

농사지을 때 거적은 비를 맞게되면 보온하는 힘이 떨어지고 또 무거워서 비닐하우스나 온상을 손상하게 되므로 주의 해야한다.

본잎이 4~5장이 나오면 해걸이를 9시간 반정도가 되게 서서히 눌려 본발에 나가서 해걸이가 갑자기 변해서 암꽃맺힘이 늦어지는 것을 미리 막아주어야 한다. 포트에 기를 때는 이 시기에 가볍게 자리바꿈을 해서 아주심기를 할 때 뿌리가 심하게 다치는 것도 방지해 준다.

오이 잎의 상태로 환경조건 가능

비온 후에 갑자기 날이 개이면 온상안에 습기가 차므로 공기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오이는 비료와 수분등의 상태가 좋으면 잎이 위로 솟고 나쁠 때는 밑으로 들어지므로 항상 돌아보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전전한 모가 되게 관리해야만 한다.

..... 오이의 본잎이 6~7장 나왔을 때가 아주심기에 알맞는 시기이며 바람이 없을 날을 택해 본발에 심는다.

심는 간격은 턴널기로기에서 보통 이랑너비 90cm, 포기사이 36cm로

하여 한평에 10포기 정도가 들어가게 한다.

아주심기전에 미리 턴널을 만들어 주어서 땅온도를 높여놓고 심기 2~3일 전에 구덩이를 파서 물거름을 주면 더욱 좋다. (본답에 직접 뿌릴 때는 90cm이랑에 포기사이 45cm정도로 한다)

아주심기전에 地温을 높여야

오이모를 풀 때는 미리 물을 충분히 주어서 가능한한 흙이 많이 불도록 하면 자리를 빨리 잡지만 흙이 적으면 그만큼 잔뿌리가 많이 끊어져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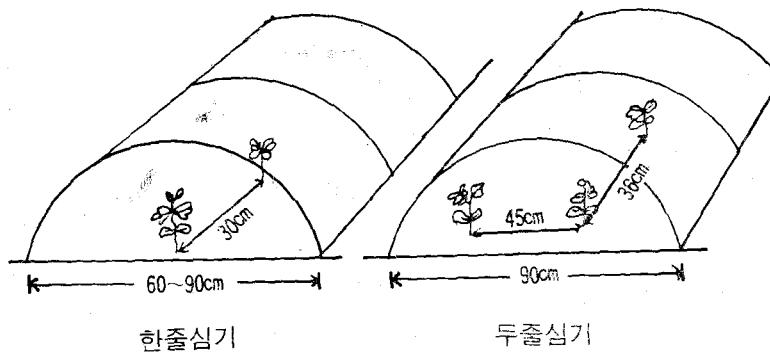
비닐포트를 썼을 때는 찰을 얇게 넣어 비닐을 벗기며 오이모를 구덩이에 뿌리목까지만 넣고 흙을 넣은 후 손으로 약간 눌러준다. 누른 자리가 움푹하면 물이 고여서 뿌리가 섞으로 평평하게 고루어 준다.

..... 아주심은 후부터 바깥 관리: 기온이 올라가서 턴널을 걷고 지주를 세울 때까지 온도관리, 물관리, 병해예방 등이 중요한 작업이 된다.

땅온도는 17°C , 공기온도는 25°C 가 가장 알맞으며 최소한 땅온도가 10°C 이하로 내려가게 해서는 안된다.

터널내에 물을 줄 때는 $12\sim18^{\circ}\text{C}$ 정도로 덥혀주고 날씨가 좋아서 내

◇ 아주심기 때의 거리



부가 30°C 이상으로 높아지면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하며 봄날씨는 갑자기 변하는 때가 있으니 오이밭은 항상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지주설치기 따라 노동력 차 커

지주는 본잎이 10~12장 나오는 시기에 세우는데 덩굴이 너무 자란 후에 지주에 묶으려면 노력이 많이 들고 반대로 너무 일찍 서두르면 모가 바깥온도에 대해 약하므로 서서히 비닐자락을 걸어서 바깥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지주의 길이는 1.5~2m 정도로서 대나무나 싸릿대 기타 잡목의 곧은 가지로 하고 사이는 3m로 설치한 후 끈이나 새끼를 3층으로 가로질러서 덩굴매기를 쉽게 하도록 준비한다.

바람이 없는 날 지주에 덩굴을 볼 들어 매며 이때 덩굴에 큰 오이가

달려있으면 따내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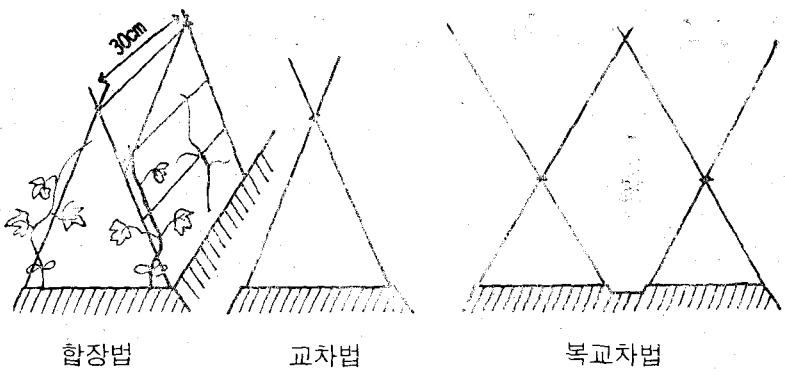
덩굴을 끅을 때 너무 힘껏 끕으면 출기가 끊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고 덩굴손은 잘라준다. 그러나 출기를 일일이 매어주는 것이 불가능하면 짚을 몇개 끝을 묶어서 줄에 걸어 오이 스스로가 덩굴손으로 감고 오르게 해준다.

지주를 세우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합장식과 교차식, 복교차식이 있는데 합장식이 가장 많이 쓰이며 이 방법은 바람에 강하고 비용이 적게 드나 교차식에 비하여 햇빛조임이 나쁘다.

오이에 암꽃이 맷 가지치기 하는 성질은 자란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결가지에는 2~3마디의 암꽃이 되고 그 뒤의 마디에서는 암꽃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오이의 수익성은 암꽃이 많이 달리는데 있으므로 순치기를 하면 어

◇ 여러가지 지주형태



느 정도 수량을 늘릴 수 있다.

보통 다다기 오이는 원줄기는 순을 치지 않고 계속기로면 10마디 이상에서부터 계속 암꽃이 피며 결가지는 2~3마디에서 결가지 하나에서 1~2개의 오이를 땀다. 다다기오이가 아닌것은 원줄기 15번쩨마디 이상에서 암꽃이 피고 다시 몇마디씩 전너서 암꽃이 피므로 원줄기 4~5마디에서 순을 치고 4개 정도의 결가지를 기르고 손자가지에 암꽃이 달리면 1~2마디를 남기고 순을 친다.

같은 품종의 다다기오이라도 본발에서 기른 것 보다 턴널에서 기른 것 이 암꽃이 일찍 많이 핀다.

오이의 크기는 오이가 달린 밑부
분의 잎수가 많을 수록 크므로 많은
잎을 두되 너무 많으면 광선을 덜
받아서 약해지고 바람이 통하지 못

해 병발생이 염려된다.

..... 오이의 수확량을
비료주기 높이기 위해서는 많
은 양의 비료가 필요하다.

10a당 질소는 30~34kg, 인산 15~18kg 가량 23~25kg을 주며 산성 토양을 삶아 하므로 아주 심기전에 800~1,000kg의 석회를 뿌려서 두덕을 만든다. 밀거름은 충분히 주어서 자라는 동안에 비료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덧거름은 10~15일 걸려서 4번 정도 준다.

수학량이 많은 수학적기

오이는 꽂이 편후 10일 정도면 딸 수 있다.

너무 늦게 따면 무기는 무겁지만
전체 수량이 적어지므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수시로 따야 한다.